安東宗親會 伏會 開催

안동종친회(회장 권주연) 주최 2014년도 안동권씨안동종친회 복회(伏會)가 8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안동시 옥동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권정달 대종원 부부를 비롯하여 권영세 안동시장 부부, 김광림 국회의원,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권오을 새누리당 인재영입위원장, 권계동 대종원 상임부총재, 권재주 전 안동종친회장, 권영길 경북도 대변인, 시의회의원, 종친회원과 부녀회원 등1천여 명이 참석하였다.

작년까지 복회를 암산유원지에서 개최하였으나 올해는 분위기 쇄신도 할 겸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열었다. 실내 체육관에서 복회가 개최됨으로 인하여 족친(族親)간의 친목(親睦)과 족의(族誼)를 다지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는 좋은 분위기가 되기도 하였다.

본 행사에 앞서 참석자들의 지루함을 달래주기 위하여 권미희 민요가수와 권용선 초청가수가 <달타령>과 <안동역에서> 등 귀에 익은 다섯 곡을 불러 흥겨운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도하였다.

권박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1부 행사에서 시조묘소 망배, 순국선열 및 문중을 빛낸 선조님에 대한 묵념, 상견례, 내빈소개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권주연 종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종전까지 권인찬 전 경북도의원의 협조로 복회가 잘 운영되었는데 지금은 병환으로 있어 그의 쾌유를 기원한다."고 하고 "지난번 6.4 지방선거에서 안동시장, 대구시장, 대전시장이 권문(權門) 사람이 당선되어 무엇보다 기쁘며 오늘은 족의를 돈독히 하는 뜻 깊은 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권정달 대종원 총재는 격려사에서 "현재 병환중인 권인찬의 쾌유를 빌고 또 바쁘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복회에 참석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감사하며 이제 서서히 문중의 분위기가 잘 잡혀가는 느낌이 든다."하고 <오기를 부리지 말라>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라>는 등 자신의 열가지 인생철학을 소개 하였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안동시장으로 당선시켜 주어 고맙다."고 인사한 후 "앞으로 족친들을 실망시키지 않게 열심히 일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여러 어른들이 도와주어서 대구시장에 당선되었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며 "권문의 누가 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하고 단상위에서 큰 절을 하고 내려갔다.

권오을 새누리당 인재영입위원장은 "족친 여러분 때문에 도의원, 국회의원, 국회사무총장 등이 되었다."고 회고(回顧) 하고 "족친 여러분의 작은 언덕이 되겠다."고 말했다. 축사가 모두 끝나자 사무국장은 협찬자의 성명과 금액을 일일이 소개하였는데 이날 협찬을 한 족친이 53명이고 협찬금이 2천 여 만원에 이르렀다.

1부 행사가 끝나자 점심은 뷔페식으로 마련했는데 과일과 맥주, 소주, 음료수 등 푸짐한 음식을 먹으며 환담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 이어졌다. 점심식사가 끝나고 2부 행사로 지회별 노래자랑과 초청가수 노래 및 경품추첨이 이어졌다. 사회자는 영남방송 전병윤씨로 각 지회 및 단체에서 선발된 27명의 노래를 일일이 들어본 결과 영예의 최우수상은 안동시 용상동 권기화 씨가 차지했는데 부상으로 상금 20만 원을 받았다.

지회별로 노래자랑을 하는 사이사이에 초청가수가 나와 노래를 부르고 흥을 돋우었는데 일부 참석자들은 신나는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추고 재롱둥이 손녀와 초등학생 3~4명이 1개조로 나눠 6개 팀이 참가하여 평소 갈고 닦은 벨리댄스(belly dance)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노래자랑 끝 부문에 대구TBC에서 활약하고 있는 초대가수 단비가 <세월아> 등 7곡을 연속으로 불러 많은 박수를 받았다.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경품추첨은 쌀, 화장지, 자전거, 선풍기, 다리미, 복사기, 믹셔기, 밥솥, 미니세탁기, 드럼세탁기, 대형TV 등 푸짐한 상품들이 400여 만원어치 나왔는데 영예의 1등은 안동시 북문골 권화자씨가 차지했다.

이날 행사는 오후 4시 20분에 마쳤으며 올해 처음으로 치룬 체육관 복회는 야외에서 하는 것보다 산만하지 않고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권영건 보도부장〉

△한국생명과학고 체육관에서 안동 종친회 복회를 열고 있으며 좌측은 권영세 시장, 우측은 권주연 안동종친회장

△기택 추진위원장과 권기화 당첨자

△초대가수 단비의 공연

능곡회장 이·취임식

능곡회는 지난 7월 24일 오후 6시 30분 안동시 봉화축협 대회의실에서 권계동본원 상임부총재, 권주연 안동종친회장, 권혁철 능우회장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능곡회 제28—29대회장 이·취임식이 있었다. 권기춘 사무국장의 사회로 상례행사에 이어 권영훈 회장 이임사, 권순창 신임회장 취임사와 권주연 안동종친회장, 권계동 대종원상임부총재, 권순협 안동농협장, 권충근 송현종친회장 등의 각 축사가 있었으며 이날 신임회원으로 권오섭, 항구, 기만, 무식, 태문, 혁술, 재범, 영범, 기환, 기문, 순익씨 등을 소개했다.

△능곡회 회장 권순창

또한 권정달 대종원총재, 권오을 전 국회의원, 김광림 의원의 축전이 접수되었으며 신임회장단의 기념 촬영으로 행사를 마치었다. 〈권혁세 기자〉

■ 역사기행

교황 방한에 따른 천주교의 발상지 천진암

▣ 향촌 권 오 창 (본원 자문위원)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앵자봉 기슭에 천진암이 있다. 이곳은 광주산맥을 따라 울창한 무갑산에 인접해 있고 산 능선을 넘으면 남한강이 굽이친다. 1779년(정조 3년) 겨울 천진암 골짜기에서 금기되었던 천주교 강학이 시작되었던 곳이다.

이의 주체는 권철신(權哲身)공이 하였다. 공은 관찰사 권흠(權欽)의 아들이었고 그의 형은 일신(日身)이다.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영세교인 이승훈(李承薰)에 의하여 천주교에 입교하였다. 공은 천진암에서 천주교 강학회를 열 때에 정약전, 정약종, 권상학, 김원성, 이총억, 이승훈, 권일신, 이벽(李檗) 등의 남인(南人)실학자와 함께 서학교리연구회(西學敎理硏究會)를 만들어 강학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권철신은 1801년(순조 1년) 신유박해(辛酉迫害) 때 체포되어 처형된다. 또한 권일신은 조상제사를 폐하고 신주를 불태우고 천주를 믿는다는 지방관헌의 상소로 처형된다.

이승훈은 정약용의 매부 이벽을 만나 천주교에 입교할 결심을 한다. 그는 1783년 청(淸)에 동지사 서장관(書狀官)인 아버지를 따라 청에 가서 북경 남천주당에서 교리공부를 하고 이듬해 북천주당에서 영세신자가 된다. 이미 청(淸)의 강희제(康熙帝)는 외국의 신기술을 배워 백성들에게 전파하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 유럽의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예수회 선교사의 활동과 로마 카톨릭교의 포교를 공식적으로 허락을 한 때였다. 그래서 청에 갔던 이승훈은 자연히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천주교에 들어가고 조선에 돌아와서 포교활동을 하면서 1785년 김범우 집에서 조선 성당 건립 추진을 한바 있다. 그리고 1789년에는 평택현감에 임명되었으며 유교에 대한 정신적인 갈등으로 4번이나 천주교를 배교하였으나 1794년 중국인 신부 주문모(周文謨)의 조선 밀입국으로 다신 천주교인이 되었다.

그러나 권엄(權儼)의 상소로 이승훈은 사형에 처하여진다. 권엄은 1765년(영조 41년) 급제하여 충청도 관찰사, 대사헌, 공조판서, 형조판서를 역임하고 1801년(순조 1년) 지중추부사에 전임되었으며 이승훈, 정약용 등 천주교도에 대한 극형을 주장하였다.

천진암 골짜기에서 천주교 강학에 참여한 이벽은 천주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1777년 권철신, 정약현(丁若鉉) 등의 서학(西學) 토론회에 참석하였고 이승훈에게 영세를 받는다. 〈다음호에 계속〉

과운칼럼

이순신장군의 전장 리더십

■ 권해조 (한국안보평론가협회 부회장: 36대 복야공파)

최근 영화 '명량'의 열풍이 극장가를 휩쓸고 있다. 박대통령을 비롯하여 정치인들도 대거 관람 하면서 한국영화 사상 최초로 개봉 12일 만에 관객 1천만 명을 돌파 했다.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두 분을 꼽는다면 광화문에 동상이 설치된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다. 세종은 국가통치권자였고, 이순신은 수군 지휘관이었다. 특히 이순신장군에 대해서는 여러 책과 드라마 등을 통하여 익히 알고 있지만, 금번 영화' 명량' 에서 그 분의 해전 리더십과 수범적 군인정신은 불후의 명장임을 재 부각시키고 있다.

명량해전은 이순신장군이 1597년 9월16일(음) 명량 수로에서 낡은 12척의 병선을 이끌고 133척의 일본 주력함선을 괴멸시킨 승첩(勝捷)이다. 당시 원균이 칠천량(漆川梁)해전에서 대패하여 수군이 전멸상태로 제해권을 왜군에게 빼앗긴 상황에서 모략중상을 받아 지휘권을 박탈당하고 백의종군하던 이순신장군이 우여곡절 끝에 3도수군통제사로 재임명된 직후였다. 장군은 10대1의 열세한 병선으로 적 함대를 남해에서 서해로 북상하는 유일한 수로이며 바닷물이 주기적으로 급격히 역류하는 명량(울돌목)으로 유인하여 격멸시켰다. 이 때 다수의 민간피난선들을 사전에 인근에 집결시켜 아 함대를 지원하는 대규모 전선(戰船)단으로 위장시켜 위력시위를 함으로서 적의 사기를 꺾었다.

영화가 흥행위주로 약간의 픽션 요소가 가미되어 왜적의 배를 부딪쳐 격침시키는 충파(沖破)나 선상백병전 등은 실제와 상이할 수도 있지만, 장군의 창의적인 해상전술은 물론 투철한 결사구국의 애국심과 사생관은 아무도 부인 못할 승전 리더십의 진수라 하겠다. 특히 다수 부하들이 출전을 반대함에도 지휘관의 결단을 과감히 실천하였다. "반드시 죽을 각오를 하면 산다(必死則生, 必生則死), 한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면 천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一夫當逕 足懼千夫)' 라고 강조 하면서 군율을 엄정 이행코자 비장한 결의와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게 한 상하간 소통의 전장리더십 발휘 장면은 관객의 심금을 울리게 한다.

영화에서 "장수는 충(忠)을 향하고, 충은 백성을 향해야한다"는 메시지는 국가 기강해이와 안보불감증으로 국민사기와 결집력이 이산되고 있는 현시점에 있어서 국가지도자가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 그리고 충성과 순복(順服)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리더십의 기본원칙을 재인식시키는 금과옥조와 같은 참 교훈이 될 수 있다. 또한 묵묵히 노를 젓는 수군병사들과 전쟁에 시달리면서 호구지책이 어려움에도 모병과 군량미 공출에 협력하는 농어민들의 국구정신은 물론, 육전에서 왜군에게 대패한 관군을 돕고자 전국에서 조직된 의병과 승병의 필사적 게리작전활동은 이순신장군의 해전 승리에 일조하였으니, 국가위기에 처하여 온 국민이 이 같이 총력전 체제로 일체화됨으로서 7년간의 대일본 전쟁에서 패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순신은 수군통제사(해군 총사령관)로 있으면서 스스로 논밭을 갈아 군자금을 만들고 당시 철갑거북선과 판옥선을 만들어 미래해전에 철저 대비함으로서, 군정 및 군령기능을 동시 행사한 행정 및 전술을 겸비한 유능한 무결점의 지휘관이었음에 무려 7년간 23회의 해전에 출전하여 단 한 번의 패함도 없이 완승을 거두었던 것은 세계해전사상 유례없는 자랑스러운 승전기록을 세우고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독전 지휘 중 적탄에 맞아 54세를 일기로 전사하였다.

이순신장군은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성을 견지하고, 항상 미래를 예측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며,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는 창조적 리더였다. 그리고 항시 부하들과 상의하며 신상파악과 명령지시 상태를 확인하고, 골육지정으로 지도 감독하고 개별적 능력개발에 힘썼다. 이는 난중일기와 유성룡의 징비록(懲毖錄)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나라사랑하는 애국정신, 제힘으로 사는 자립정신, 정의를 목표로 삼는 대의정신, 부하와 국민과 함께하는 애민정신, 새 길을 뚫고 나가는 개척정신 등으로 집약된다.

그는 평생을 나라와 겨레를 위해서 정의롭게 살았으며 민족정신을 구현한 역사적 도표(道標)로서 청사에 길이 빛날 성웅(聖雄)이다. 순국 후 선조대왕은 '나는 그대를 버렸지만 그대는 나를 안 버렸다' 고 하였고, 숙종대왕도 현충사 제문에 '절개에 죽는다는 말은 옛날부터 있지만 제 몸 죽고 나라 살린 것은 이분에게서 처음보네' 라고 공의 죽음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노산 이은상도 '민족의 태양, 역사의 면류관' 이라고 칭송했으니, 충무공은 불멸의 위기관리 선구자이며 현대판 최고 경영자로서 손색이 없다. "적을 업신여기면 반드시 패한다(輕敵必敗之理)와 장부로 태어나 나라에 쓰이면 죽기로 최선을 다"라는 그의 말은 후세에 귀감이 되고 있다.

이순신장군이 가신지 416년이 된 지금도 국내 정파싸움은 변함없고,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 일본은 언제 또다시 우리를 침략할지 모른다. 영화 '명량' 을 통해 상궤를 일탈한 젊은이들에게 충무공의 구국정신과 애국심을 본받도록 일깨워줌으로서 국민의 안보망각증과 군의 주적개념을 재정립 강화하는 동기유발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두물머리의 기적-①

·1952년 1월 15일 생
·행정고시 26회
·인천광역시 교육감권한대행
·교육부 국장, 과장
·국무조정실교육정책관
·양서고등학교 교장

권진수(權鎭壽)

전교사 윤리교사화의 효과

첫 2학기를 앞두고, 모든 선생님에게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한학기에 1시간 이상 교과시간 중 1시간을 확보하여 인성교육을 해 주십시오' 즉, 그 시간에는 해당 교과수업이 아니라 인성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내용과 방법은 전적으로 선생님에게 일임하여 다양성과 자발성을 유도하였습니다. 다만, 추상적이고 고차원의 덕목에 치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가까운 이웃의 이야기 등을 섞어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컨대 인사하기, 질서지키기, 시간관념 등이 그것입니다. 공동체생활에 필요한 덕목들을 특히 강조하며 기숙사학교의 장점을 살렸습니다. 성적을 떠나 그 결과 양서고 아이들의 표정이 참 밝아졌습니다. 또 다른 변화들로 교정과 교실이 깨끗해졌고 웃으며 인사하는 습관이 몸에 배게 되었습니다. 반듯한 생활교육과 인성교육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體·德·知로 change!

지식을 앞세우면 지식습득에 몰입하게 되고, 그 결과는 體育과 德育의 홀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체육과 인성을 우선하기 위하여 학습시간을 줄여 확보한 시간을 체육과 덕육에 쓰도록 하는 방안을 과감히 시도했습니다. 8시부터 오후 11시 50분까지 이어지는 시간표를 조정하여 1주일 학습시간 중 380분을 줄여 3등분하여 체육, 대화, 수면에 사용토록 결정하였습니다. 내부 공감대를 이루는데 거의 한학기를 보냈으나 차츰 변화를 느끼며 건강한 몸과 정신에, 학력까지 높아져 갔습니다.

저는 전교조가 설립되던 초창기에 분명 우리 교육에 적잖이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와 열기가 뜨겁던 그 때 민주나 인간화를 내세우며 참교육을 표방했던 전교조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것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 후 전교조는 점차 변질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전교조에 대해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은 교원들의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교원답지 않은 행동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말해 그들이 민주노총이라는 상급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자체가 교원답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행동 역시 학생의 더 나은 인권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민주노총 단위의 수많은 정치활동에 전교조 선생님들이 참여해 열정을 쏟는다.

그래서 저는 전교조 관련 간부들을 만날 때마다 민주노총을 탈퇴한다면 우리 들이 좀 더 생산적인, 합리적인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곤 합니다. 민조노총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상위의 정치조직을 탈퇴한 상태에서 교육자 대 교육자로서 서로의 입장 차이를 이해하고, 우리 학생들의 인성함양과 학력 향상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방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권하는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지역단신

▲안동권씨서울청·장년회 화합과 발전을 위해 익명을 요구하신 종친님께서 본회 회원 자녀 중 애족사상이 확고하고 학업의지가 강한 자녀를 상대로 대학생 1명 1학기 등록금 전액, 고등학생 1명, 학자금 1년분, 전액상당의 장학금 지급을 약속하였고 제1호로 안동권씨서울청·장년회 제8대회장을 역임한 권혁용의 장녀 희영(경북대학교 법학대학원 law school3년)양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앞으로 훌륭한 법조인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권승호 서울청·장년회장은 지난 4월 30일 세월호 희생(실종)자 유가족에게 양말100만원 시가(400컬래)를 희생자 구조본부가 있는 진도체육관으로 기증하였다. 〈권순용 사무국장〉

▲영주장년회(회장 권오두)는 지난 8월 12일 영주시 가흥1리 한양삼계탕에서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월 월례회를 개최했다. 〈권혁세 기자〉

동정

▲권순일 신임대법관에 임명 6년 임기가 끝나는 양창수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55·사법시험22회·사진)이 지명됐으며 이달 25일경 국회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권 후보자는 경기 안성 출신으로 대전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법원수석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법원 내 요직을 거친 엘리트 판사로 꼽힌다.

▲권용현 여성부차관으로 내부승진 권용현(54) 신임여성가족부 차관은 정부내 손꼽히는 여성정책통 관료다. 정무 제2장관실 시절부터 여성가족부에 이르기까지 공직생활 대부분을 여성관련 업무에 종사해왔다. 권 차관은 충북충주 출신으로, 대전고-연세대경제학과를 거쳐 행정고시32회, 충북 행정사무관을 시작 여성가족부 대외협력관,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정책관, 여성가족부 대변인·기획조정실장·청소년가족정책실장 등을 두루 거쳤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지난 24일 저녁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에서 열린 '2014전국경제인연합회 CEO(최고경영자) 하계포럼'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1960~70년대 중반까지도 우리나라를 '아시아의 4마리 용' 아라고 했는데 싱가포르와 홍콩은 하늘로 올라가 용이 됐지만 우리는 이무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하절기 에너지 절약 캠페인 지난 22일 오전 8시 30분부터 시장 부임 이후 처음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범어네거리에서 에너지관리공단 대경본부, 전국주부교실 대구지부, 에너지기술인협회 등과 함께 하절기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실시했다.

▲권은희(42·36世.추밀공파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 당선) 사시43회·2005년 경정특채 서울서초경찰서 수사과장 출신인 권 당선자는 당선이 확정된 직후 "오직 정의의 한길로 달려가겠다."며 "여러분의 선택에 응답하는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권영세 안동시장 안동풋굿 축제 안동권영세 시장은 25일 와룡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열린 제11회 안동풋굿축제에 참석 미풍양속을 계승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전국유일의 축제를 맘껏 즐겨 줄 것을 당부했다.

▲권우동 언론중재委 사무총장에 임명 언론중재위원회 박용상 위원장은 28일 권우동 영남본부장(52)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辭令

權 景 一
업무부장에 보함
2014년 8월1일부 **대종원 총재**